

무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의장 주유소서 마을버스 주유하고 운영위원장은 농지 임대 지역민들 “특혜 여부 등 철저한 전수 조사로 의혹 해소해야”

무안군의회 의장과 의회 운영기획위원장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 등에 따르면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이 운영하는 정계면 소재지 주유소에 마을버스 업체가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고 있고, 의회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김봉성 의원은 사업별 예산 집행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행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의 주유소에는 김 의장이 5년 전 산업건

설 분과위원회 위원장일 때부터 마을버스 업체가 정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군이 군민교통편익을 위해 매년 마을버스 업체에 3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심의 의결한 의장의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주유를 한다는 것은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 의장의 주유소에 마을버스 업체가 2022년에 3억 3692만3000원, 지난해에도 2억2801만9000원 등 최근 2년 동안 5억6494만2000원을 주유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 주유소에서 마을 버스

회사가 기름을 넣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우리 주유소에서는 무안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 운영기획위원장인 김봉성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어 농민회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무안을 신화리 1076번지 외 4필지 5만여 평을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평당 500~600원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1100만 원도 받고 있다.

지역농민회는 “김 의원은 간척지에서 지난해에 만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1억원 이상 번 셈”이라며 “의원 신분이어서 이익이 많은 공공토지를 쉽게 임

대할 수 있었는지 혹은 다른 이해관계가 작용했는지 등을 명백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은 특히 김 의원이 임대한 토지가 무안군이 개발을 추진하는 주요 거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대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방조제 시설 사업 등 수탁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무안군 의회 운영기획위원회는 무안군 실과 소조작과편과 사업별 예산 집행 기관 편성액 수정액 예산 세입 세출 의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해 충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해당 위원회를 회피해 영향력이 작용할 수 없게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3년간 회의 0’ 5곳 2회 이하 위원회 8곳 영광군 정비 나섰다

영광군이 각종 군정 추진 과정에서 상설됐으나 사실상 운영 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에 나선다.

영광군은 이달초부터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위원회 총수는 95개, 위원은 1246명(2022년 대비 7개가 줄고 13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회의 개최 횟수는 237회로 전년도보다 197회 줄었으나, 회의 수당은 오히려 6289만5000원이 지급돼 전년도보다 1123만 1000원 늘었다. 2022년부터 서면회의도 수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회의 수당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3년간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여성농업인업정책임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등 57개다.

3년간 연간 2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국제스마트이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축제발전위원회 등 8개다.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하지만 법령상 강행위원회로 지정돼 존속해야 하는 위원회는 18개다.

영광군은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들을 비상설화 위원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규정상 한 위원당 최대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 참석할 수 없는 만큼 위원들이 활동이 없는 위원회 대신 다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고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활동이 거의 없는 위원회가 사실상 남아 있으면 향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이 지적될 수 있다”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맛·풍미 뛰어난 ‘1004굴’ 맛 보세요 ‘신안1004몰’ 설 기획전

신안군이 군 온라인 쇼핑몰 ‘신안1004몰’에서 갯벌과 햇빛, 바람을 맞고 자란 건강한 ‘1004굴’을 설 기획전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1004굴’은 전국 유일의 자연 노출식 양식으로 맛과 풍미, 식감이 뛰어나고 생식소가 발달하지 않아 사계절 먹을 수 있다. 육질과 껍질이 단단해 저온에서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다.

신안군은 군민의 소득 증대와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1004굴 연구 사업을 통해 종자 생산에서 출하까지 양식산업과 체계를 구축했다.

여가 참여형 시범양식장을 운영하고 자동세척과 선별, 포장, 해감 시설을 갖춘 1004굴 전용 처리 저장 시설 등을 지원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에서 생산된 ‘1004굴’은 국내 유명 호텔에 판매되고 있으며, 홍콩 외 4개국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첫 해외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소비자의 입맛을 저격하기 위해 ‘2024년 신안1004몰 설 기획전’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추석 명절에 신안1004몰에서 소량으로 깜짝 판매해 아쉬웠다”며 “충분한 수량을 준비해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이 지난 26일 해남진도축협과 공동으로 해남진도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사육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발대식을 가졌다.

“전국 최고 한우 만든다”...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출시

500농가 3000두 회원 농가 육성 고급육 생산·전문생산단지 조성

해남 한우가 ‘해남땅끝한우’ 브랜드로 새롭게 출발한다.

해남군은 해남진도축협과 공동으로 최근 해남진도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사육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발대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2021년부터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해남땅끝한우’ 상표를 개발하고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해남땅끝한우는 사육과정에서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를 먹고, 한우 개량을 통해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해 해남한우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200농가 1000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농가 3000두의 회원 농가를 육성,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전용사료 급여와 사양관리로 최고급 한우 생산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출산하지 않은 암소인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에 착수, 전용사료 배합기술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사료급여 시험을 통해 사양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해남땅끝한우는 해남진도축협 하나로마트 해리

점과 고도점 2개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향원, 성내식당, 북평남창대동명품한우 등 3개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앞으로 전문 매장 등 유통망 구축에도 나서 각종 축제 등을 연계한 브랜드 홍보와 대도시 전문 브랜드 매장도 개설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1400여 농가에서 5만7000여 두의 한우를 사육, 전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한우사육두수를 기록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땅끝한우 브랜드화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한우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전국 최고의 한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60억원 규모 융자 지원사업

목포시는 총 60억원 규모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 지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은행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융자 규모는 총 60억원이다. 각 업체당 융자금의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출 이자의 3%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조선소와 협력업체, 호텔·여행업, 원도심 숙박업, 자동차 정비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 한해 우선 지원된다. 휴·폐업했거나 세금을 체납하고, 최근 3년 동안 3억원을 이미 대출 받은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목포시는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8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담당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 섬여행 ‘반값으로’ 여객선 운임 50% 지원 2월부터...섬 관광 활성화 나서

완도군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관광객의 여객 운임비 부담을 덜어주고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산도, 여서도, 노화(넙도), 소안, 보길도를 방문하는 일반인에게 여객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임이 지원되는 항로는 완도-정산, 완도-여서, 화흥포-동천-소안, 땅끝-산양, 땅끝-넙도이다.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할인 등을 받는 경우는 할인을 우선 적용한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10월4일부터 12월26일까지 12만 3343명에게 3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이 감소해 약 8만3000명의 관광객과 일반인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섬 여객선 반값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운임 부담을 줄이고, 최근 섬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섬 관광 활성화에도 보탬이 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기를 바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사와 협의,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남악·오룡시장 ‘자율상권’ 지정 자생력 높인다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선정 땀 5년간 사업비 100억 투입 낙지·양파 등 차별화·야시장 개장

무안군이 쇠퇴하고 있는 남악·오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 지정을 추진한다.

무안군은 올해 전남도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남악·오룡시장을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남악·오룡시장 상인회 50여명과 함께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 선정했으나, 사도가 선정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지역상권발전 승인된 자율상권 구역이 지정돼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남악·오룡시장은 남악신도시 조성 시기에 맞춰 문을 열었다. 하지만 시장 배후지역에 대형상가와 중소형 상가들이 늘어나면서 상권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무안군은 남악·오룡시장 중심으로 자율상권 구역을 지정하고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남악·오룡시장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자율상권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 이상 포함된 곳으로,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이어야 한



무안군이 남악·오룡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최근 ‘상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열어 자율상권 지정과 공모사업 신청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다. 구역 안 행정동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 인구수 등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감소하면 자율상권구역에 지정된다. 이달 기준 오룡시장에는 52개 점포 가운데 41개, 남악시장에는 72개 중 6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실률은 각각 21%·7%이다. 상인회 회원은 오룡시장 26명, 남악시장은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남악·오룡시장은 오는 2월까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추진한 뒤 올해 상반기 공모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시장 상인과 임대인으로부터 3분의 2 이상 사업 동의를 얻는 ‘상생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9년

까지 5년간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무안 특산품인 낙지, 양파, 고구마, 쌀, 차 등을 활용해 ‘다섯 가지 맛’을 차별화하고 야시장을 열어 목표를 포함해 10만여 명의 잠재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초·육아 가족들에게 상권과 연계한 지원을 펼칠 계획도 세웠다.

이해향 무안군 지역경제과 과장은 “자율상권이 지정돼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상인들의 열정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2025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군 도로관리 업무 통합 도로민원 원스톱 해결한다

영암군이 올해부터 도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초 조직 개편에 따라 도로시설팀이 도로 업무를 모두 맡게 된다.

그동안 군도와 농어촌도로, 마을간길·소규모 도로·골목길 등 비법정도로는 건설교통과가 맡았다. 읍·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었다. 영암군은 이번에 건설교통과 토목팀을 도로시설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도로관리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도록 했다.

영암군은 도로 점용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민 편의를 높이기도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긴급보수 등 도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며 “도로의 효율적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